

우리의 종교 간 약속을 형성하는 성서적 이야기 기억하기:

종교 간 나눔을 통한 다리 놓기

Remembering a biblical narrative that shapes our interfaith commitments

Building bridges through interfaith work

By J. Herbert Nelson, II

총회 공 서기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미국장로교 총회사무국(OGA)에 공서기로 근무 한지 한 달이 지나서 보니 우리 교단에 지식이 풍성하고 헌신이 투철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카드, 이메일, 편지, 텍스트, 트윗, 그리고 음성녹음으로 후원과 기도를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 가야할 여정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의 순간에 미국장로교단을 인도하게 됨에 특권과 겸손을 동시에 느낍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있었던 222 회 총회(2016)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양의 통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대부분의 편지와 이메일은 긍정적이었지만 조금은 예수를 선지자로 부른 모슬렘 파트너의 기도에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알라의 신을 표명하였습니다.¹ 몇 개의 통신물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장로교인들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은 공격적인 것으로서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고, 경전인 성경은 성자 하나님으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총회사무국은 중간의회 리더들과 회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설명, 그리고 모슬렘 손님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의 반응을 보인 개인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 다른 일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의 31 년간 안수목사로서의 기간동안 교회교인들과 다른 기독교 단체들은 종교 간 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연대성과 우리 교단의 위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곤 하였습니다. 종교 간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신학적 신앙의 위치 혹은 믿음이 종교 간 공동체를 묶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다리는 사랑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연결된 세 개의 위대한 종교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의 모습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각각 이슬람과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같은 창조주 - 다른 선지자, 메신저, 그리고 역사의 다른 시간에 해당되는 종들을 보내시는 - 를 인정하는 우리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중심적인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우리의 묵상, 기도, 그리고 명상은 다른 메시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이 없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과 반대됨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우리 성경말씀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 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골 3:14)라고 하며 우리의 집단적인 연대성에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종교 간 약속의 본질입니다.

알라는 이슬람 신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람어에서 파생되며 성서의 희랍어와 히브리어 이전에 선행되었습니다. 코란은 이슬람 신앙의 경전입니다. 최상의 신을 믿는 진정한 이슬람 교인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관계에 사랑이 기초를 이루지 않는다면 예배도, 봉사도, 혹은 신앙의 표현도 없다고 증거합니다—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이 믿음, 실천, 그리고 예배의 공통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일을 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슈와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무조건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장로교인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33 년간 두개의 장로교 연합이 가져온 일치를 위한 우리 자신들의 갈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간 일은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란과 성경은 둘 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경험에는 극단주의에 대한 내용을 읽거나 때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자들의 비슷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코란을 불태우며 이슬람을 반대하였습니다. 믿음공동체를 대표한다고 사칭하는 과격주의자들이 공중파 미디어를 담보로 악담을 내뱉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지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종교 간 대화를 지원하며 다른 믿음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간의 대화와 인간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보다는 사랑이 위대한 힘 인줄 믿기에 집단적인 헌신을 위하여 확고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문화에 극단적인 행동들을 구별 할 것을 도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살인과 다른 폭력 및 신랄한 행동으로 타인 및 단체를 공격함은 세 개(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위대한 종교들의 경전과 핵심적 신앙 가치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공통성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간의 공통적인 목적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다른 이들이 다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자 대답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 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막. 9:39-40). 화합의 결합이란 목적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지 그 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예수님께서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종교 간 대화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유대-기독교-이슬람 전통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공통적인 유산의 뿌리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전통의 조상들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사라와 하갈이 낳은 배다른 이복형제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기독교의 연장선이고 한편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슬람 전통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고리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총회 사무국은 이러한 연결을 통한 종교 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서적 신앙에 기초하여 공통적인 띠로 묶여진 종교 간의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종교단체라는 공동적인 연결점으로 다른 종교 분야 (이 문서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음)사람들을 우리의 총회손님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에는 유대-기독교-이슬람 전통 외에 다른 종교단체들 즉 수도 워싱턴과 뉴욕의 정의 옹호 단체 및 지역 공동체의 종교 간 예배와 친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슬람 공포증”과 우리의 종교 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증오 범죄를 종식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교 목회자들이 증오범죄로 희생된 피해자인 타 종교 공동체를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 지역과 국가적인 최근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이는 오클라호마와 보스턴에서의 폭탄테러에서부터 캔사스 외곽 유대인 시설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을 말합니다.

종교 간 대화는 신학적 일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상황 안에서조차 모든 조항들의 의견일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뛰어넘기 위하여서는 상호 협력과 사랑이 열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져진 장로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의 삶을 바칩니다. 또한 치유,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성령사역에 힘 쓰시는 조역자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벽의 경계선을 부수는 사랑과 존경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줍니다.²

종교 간 대화와 에큐메니칼 사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링크에 연결됩니다: [The Office of Ecumenical Relations](#) and [The Interfaith Relations Office](#).

¹알라는 하나님을 명칭하는 이슬람 신앙의 언어이다. 이는 아람어로서 성서의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선행한다. 코란은 이슬람 신앙의 경전이다.

²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준다”는 문구가 성서(고전 13)에서 비롯되며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대화에 기초적인 선언임을 인정한다. “사랑의 윤리”는 모든 경전(성서, 토라, 코란)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각 경전은 이 것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은 서로와 함께 일치함의 핵심임을 모든 신앙이 부정하지 않는다.